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⑫

제16 범행품(梵行品)을 다시 살펴보자. 정념천자(正念天子)의 범행에 관한 질문에 법혜(法慧) 보살이 대답한다.

"만일 계율이 범행이라면, 화상이 계율인가 아사리가 계율인가 머리 깎는 것이 계율인가 가사 입은 것이 계율인가 결식함이 계율인가 정명(正命)이 계율인가... 이렇게 관찰하면, 범행이란 법은 얻을 수 없는 연고며, 삼세의 법이 다 공적한 연고니, 온갖 부처님 법을 갖춘 연고로, 이것을 청정한 범행이라 이름하느니라."

위의 내용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억할만하여 열거한 것이다. 수행인이라고 계율만 잘 지키고, 신통을 얻고 아라한과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는

관하신다. 달이 일천강에 비치듯이 가지 않으시는 곳이 없지만 깨달음을 성취한 분처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신다.

이어서 제20 아미타중계천품이다. 아미타 설법에서는 화엄경의 특징이 더욱더 잘 나타나는 계승을 만날 수 있다. 공덕림(功德林) 보살의 계승을 보자.

"부처님 큰 광명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시니 천상 인간의 높은 어른 보습이 환히 트이여 걸림이 없네(佛放大光明照於十方하시니 悉見天人身) 通達無障礙로다 / 시방세계 모든 곳마다 부처님 여기 계시다지만 혹은 인간에 계시고 혹은 천중에 계시고(十方一切處에 皆謂佛在此라하시니 或見在人間하며 或見在天宮이로다)"

각립보살의 계승에서는 유명한 '화가의 비유'가 설해진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는데 오손이 마음

마음 화가같이 만물 그려내

중생 외면하는 불교 상상할 수 없어

것이다. 일불승(一佛乘)의 범으로 중생의 삶과 함께 하지 않는 불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지혜제일(智慧第一)이신 '사리불(舍利弗) 같은 이가 한량없이 모여 함께 생각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假使滿世間 皆如舍利弗 盡思共度量 不能測佛智) 라고 하였다. 일불승이 무엇인가? 모든 중생을 당신의 깨달음과 같이 되게 하려는 여래의 본원(世本懷)을 말한다. 여기에 대승 불교의 큰 뜻이 있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는 불법을 만나고 안 것만으로 뽐낼 일이 아니라 반성을 다시 한번 하여야 하리라. 출가하여 더욱 죄업을 짓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오지 않았던가?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포교하지 않고 오히려 불교를 망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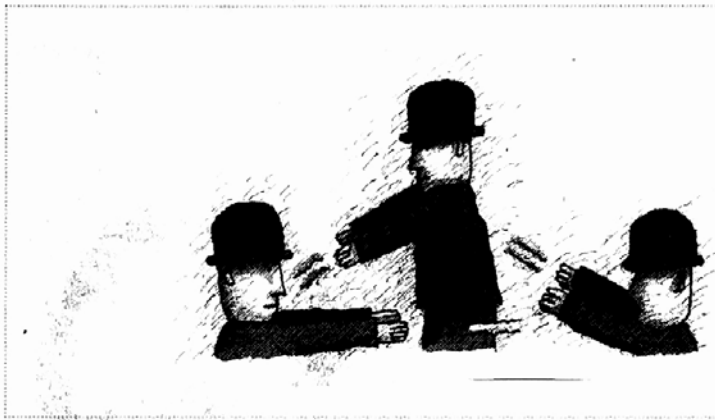
아마천궁(夜摩天宮)에서 제4회 설법이 진행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의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의 법회장소를 여의지 않고 아마천궁의 법회를 주

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나 못 짓는 것 없네(如工畫師 能畫諸世間 五蘊悉從生 無法而不造) / 마음과 같이 부처도 그려하고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려하니 부처나 마음이나 그 성품 모두 다함 없네(如心佛亦爾 如佛衆生然 應知佛與心 體性皆無異)라 했다. 이 부분을 60년 화엄에서는, "마음과 같이 부처님도 그려하며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려하여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은 꼭 같아 차별이 없네(如心佛亦爾 如佛衆生然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선불교(禪敎)에서는 이 계승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본래 80권 화엄에서는 이와 같이 '체성개무진(體性皆無盡)'을 말한 것인데, 선사들은 '심즉시불(心即是佛)'의 관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왔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니 마음은 그림 잘 그리는 화가처럼 모든 것을 뜻대로 성취한다.

지난해 이맘때쯤 우리는 남북 통일의 희망에 가득차 있었다. 경문에서 보듯이 마음을 연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불교선사능력학원 연구원



그림·문병성

우주 팽창·수축 좌우하는 변수

불교와 과학 <31>

인력은 물체들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고 척력은 서로 미는 힘이다. 물체들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그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것이다. 우주 공간에서는 이런 힘을 우주 중력이라고 한다. 우주 중력은 우주에 산재해 있는 별 뿐만 아니라 우주입자와 같은 미세한 물질에까지 힘을 미친다. 그러나 이 힘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들과 함께 그리고 물질들로부터 발생되는 힘이다. 쉽게 말해서 물질이 먼저 존재하고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대하여 인력을 방사하는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만의 물질이 존재할 때는 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존재할 경우 자동적으로 힘의 존재가 부여된다. 그 물질들의 존재는 원천적으로 상호적 힘의 관계를 내포한다. 그래서 물질과 힘은 하나이다.

예를 들어 우주 안에 신의 공간 90% 분포... 은하단 뭉치게 하는 힘 보이지 않지만 우주진화 결정적 요소 주와 개성 그리고 부산이라는 물체가 있다고 치자. 신의 주와 개성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동시에 개성과 부산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신의주가 개성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부산이 개성을 끌어당기는 인력보다 크다면 개성은 신의주로 다가가 충돌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라면 개성은 부산 쪽으로 충돌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거리에 비례해서 개성을 중심으로 한 인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개성은 현재 위치에서 중력의 적절한 비례관계를 유지한 채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물질들이 태평양 건너 무수히 많은 경우, 다시 말해서 그 물질들의 거리가 멀어 그 하나하나가 큰 힘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작은 힘들이 무한히 많다면 그 작은 힘의 합은 큰 힘이 되어 부산이나 개성이나 신의주를 반대 방향으로 외곽으로 뺏겨져 나가게 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물질들 사이의 간격은 벌어지고 말 것이다. 그와 반대로 개성과 신의주 사이에 혹은 개성과 부산 사이에 미세한 작은 물질들이 무수히 끼어들어 있다면 그들 사이의 인력이 작용하여 신의주와 개성 그리고 부산은 결국 충돌하여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다.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예는 우주 공간에서 인류의 시간을 초월한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주 속에 뉴트리노와 같은 미세물질들이 존재

한다면 그 물질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그 물질들의 밀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느냐 아니면 축소하느냐 하는 우주의 진화론적 역사가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미세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1933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조사하는 중, 은하가 따로따로 흩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우주가 진화해온 150억년 동안 은하는 제멋대로 흩어지고 말아 결국 은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자시 피 오늘날의 우주는 은하단을 가지고 있다. 결국 츠비키는 은하의 별들 말고도 대량의 어떤 물질이 존재하여 그 물질이 인력을 미쳐 은하단을 뭉치게 하는 인력을 방사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암흑물질(dark matter)이라고 불리지는 극미세 물질 개념의 시초였다.

1995년 텔아비브 대학 골드워스 교수는 우주 대폭발 이후 이제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의 양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해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암흑물질이 우주에 존재하는 (원리적으로 보이는) 물질의 최소한 10배 이상은 되어야 현재 우주의 이등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 우주의 질량 분포도에서 암흑물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암흑물질의 존재량에 따라서 우주 밀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주밀도를 결정하는 암흑물질의 양과 분포도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할 것인지 아니면 수축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주밀도가 수축 임계치보다 클 때 이 우주는 팽창하다가 나중에는 수축으로 돌아설 것이며, 우주밀도가 수축 임계치보다 작을 때는 계속 팽창할 것이다.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 우주의 진화론적 미래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이다. 그런데 비바사론(毘婆沙論)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다. 물론 우주물리학의 암흑물질과 비바사론의 공계색(空界色)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 보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우주진화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당장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번뇌의 틀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에게 반성의 작은 씨앗을 주는 물리학적 지식이기도 하다. 유견(有見)과 유대(有動)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삶의 끈들을 인연의 시나리오로 삼는 그런 무견(無見)과 무대(無動)의 세계를 헤아릴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최종영/상지대 교수 dchoi@chak.sangji.ac.kr

참선하는 5천여 수감자 내면의 평화·희망 찾아

지구촌 불교 / 美 교도소서 법회

살인이나 무장 강도 등 무거운 형량의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만을 수감하는 미 연방 교도소 그린해븐(Green Haven)에 법향이 퍼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5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에 의해 1급 범법자로 분류된 2천여 명의 죄수를 수감하고 있는 그린해븐 교도소에서 연꽃불자회(Lotus Flower Sangha)로 불리는 모인 회인 14명이 매주 수요일 지오프리 아놀드(G. Arnold) 스님의 지도로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딱한 심신을 정화하고 있다.

아놀드 스님은 일본계 선원인 선산사원(Zen Mountain Monastery)에 소속된 스님으로 그린해븐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 교화에 나선지 4개월 만에 첫 법회를 봉행할 수 있었다. "참선을 통해, 죄수들이 자신도 알지 못한 선한 마음을 보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스님은 말했다. 아놀드 스님은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법회를 집전하며, 죄수들이 공(空)과 연기사상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



◇그린해븐 교도소 수감자들이 법회를 봉행하고 참선하는 모습.

그린해븐 등 교화정책에 佛法 수용 법사·스님 명상지도 심신정화 효과

의 뜻을 깨달아 스스로 교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놀드 스님의 노력은 매주 법회에 참석한 죄수들의 말로써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빌기스(Burgess, 45) 씨는 "수행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와 자비심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 작은 불단을 만들 정도로 신심이 두터운 불자로 거듭났다. 참선이나 명상과 같은 불교 수행법은 처음에는 아시아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만 유행했는데, 이제는 2백여 만 명의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자기 수행법'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의 가장 외진 곳, 교도소에서도 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산사원이나, 교도소 불법 네트워크(Prison Dharma Network), 불교평화교우회(Buddhist Peace Fellowship) 등과 같은 불교단체의 노력이 적잖게 포함되어 있다. 이들 단체의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책이나 비디오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 이제는 법사나 스님을 파견해 참선이나 명상을 지도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불교평화교우회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8개 교도소에서 참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의 '교도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다나 리온(Diana Lion) 씨는 "참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들이 내면의 평화와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단체의 프로젝트는 미 연방정부의 교화 정책에 수도용 전담이다. 미 연방 교정 서비스 위원회에서 이들 단체의 프로그램을 교정 정책에 반영할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a.com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집합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 승선식(2개월 50만원), 승효소성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로(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원장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중풍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중풍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범룡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표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 하는데 효과가 인성해 약상을 받고 있는 「세시미놀」 성분을 대량 추출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물질로 지금이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 료 총 판 법 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